

채소 소비와 건강 관심의 관계를 조절하는 음식 몰입과 음식 신공포증의 효과 평가

강 종 현[¶], 정 항 진
순천대학교 조리과학과

Measuring the Moderating Effects of Food Involvement and Food Neophobia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Vegetable Consumption and Health Concern

Jong-Heon Kang[¶], Hang-Jin Jeong
Dept. of Cooking Science, Sunchon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measure the effects of food involvement and food neophobia moderat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vegetable consumption and health concern. The questionnaires with the items to measure constructs of health concern, food involvement, food neophobia and vegetable consumption were completed by 290 subjects in Jeonnam area. Moderated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measure the relationships between variables. To test validity and reliability of constructs, factor analysis and Cronbach's α were used in this study. Results of the study demonstrated that the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data also indicated excellent model fit. The main effects and interaction effects of health concern, food involvement and food neophobia on vegetable consumption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Moreover, the effect of health concern on vegetable consumption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all levels of food involvement and food neophobia, except when food involvement and food neophobia were high. The present findings may be particularly relevant to interventions to promote healthy eating among adults.

Key words : moderating effect, food involvement, food neophobia, vegetable consumption, health concern, moderated regression analysis.

I. 서 론

채소, 과일 또는 통밀 빵(whole-grain bread)과 같은 음식들을 풍부하게 소비하는 것은 건강 증진과 관련이 있으며, 실제로도 이런 음식들이 일부 비전염성 질병을 예방한다는 증거들이 밝혀지고 있다(Montonen et al. 2005). 그렇지만 여러 나라에서 행해진 식생활 조사에 의하면 대다수의

국민들은 적당량의 채소, 과일 또는 통밀 빵을 소비하지 않고 있다. 어떤 효과적인 식생활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런 음식들의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에 대해 파악해 필요가 있다. 채소 또는 과일의 소비를 설명하거나 예측할 수 있는 요인으로 여러 요인들이 제시되어 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제시되었던 요인들은 크게 태도와 신념, 자기 효능감(self-efficacy),

¶ : 교신저자, 061-750-3694, astckjh@hanmail.net, 전남 순천시 매곡동 315

스킬(skill)과 선호도와 같은 개인과 관련된 요인들과 사회적 규범, 사회-경제적 상태와 이용 가능성과 같은 사회-환경적 요인들이었다(Uglen et al. 2007).

음식 소비에 관한 연구는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들(Stephoe A 1991; Greeno & Wing, Baum & Poslusny, Zellner et al. 2007)도 있었지만, 개인 속성, 음식 선택 동기와의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들로 대별해 볼 수 있다. 개인 속성과 음식 선택 동기가 특정 음식이나 음식 섭취에 대한 태도와 음식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은 음식 선택 동기의 조절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들이었다. 먼저 음식 섭취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음식 몰입과 음식 신공포증의 조절 효과를 분석했던 연구(Chen MF 2007)가 있었다. 개인 속성들 중 음식 몰입의 조절 효과를 분석했던 연구(Furst et al. 1996)가 있었고, 건강 관심이 우유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음식 몰입의 조절 효과를 분석했던 연구(Eertmans et al. 2005)도 있었다. 그러나 건강 관심이 채소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음식 몰입과 음식 신공포증의 조절 효과를 분석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건강 관심, 음식 몰입, 음식 신공포증과 채소 소비 등의 구성 개념을 이용하여 조절회귀모형을 개발하고 음식 몰입과 음식 신공포증의 조절 효과를 분석하는데 두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인간의 음식 선택은 여러 영향 요인들이 포함된 복잡한 과정으로 설명되어 왔다(Furst et al. 1996). 음식 선택의 결정 요인들은 음식의 감각적 측면들과 같은 음식 내적 자극 또는 음식과 관련된 영향 요인과 인지 정보(cognitive information), 물리적 환경, 사회적 요인 등과 같은 음식 외적 자극 또는 음식과 관련되지 않은 영향 요인들로 구분되어 왔다(Eertmans et al. 2001). 이런 개인 속성들에는 개인의 혐오감과 선호도, 인구통계학

적 변수, 음식 몰입과 심리적 또는 생리적 요구와 속성이 포함된다(Eertmans et al. 2005).

음식 선택과 관련된 개인 속성들 중 하나는 음식 신공포증(food neophobia)이다. Pliner & Hobden(1992)은 음식 신공포증을 개인이 새로운 음식(가공품, 음식, 전통음식)을 소비하지 않으려 하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음식 신공포증은 먹는 회수와 소비량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음식에 대해 기대하는 정도 또는 실제 좋아하는 정도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liner & Hobden 1992; Pliner et al. 1998; Eertmans et al. 2005). 음식 신공포증과 매일 행하는 음식 선택 간에도 부(-)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Koivisto-Hursti & Sjoden 1997). 게다가 음식 신공포증은 건강한 식생활(general dietary healthfulness)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Galloway 등(2003)과 Cooke 등(2004)의 연구에선 아이들의 낮은 채소와 과일 소비량이 음식 신공포증의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였다(Eertmans et al. 2005).

최근에 음식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로 더 많이 강조되고 있는 음식 선택과 관련된 개인 속성들 중 다른 하나는 음식 몰입이다. 높은 수준의 음식 몰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감각 평가 또는 쾌락적 평가에서 음식 항목들 간 차이를 보다 잘 구분하는 것으로 나타났고(Bell & Marshall 2003), 그리고 채소와 과일로부터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한 사람들은 지방 또는 스낵으로부터는 더 적은 양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과 같이 더 건강한 식생활을 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arshall & Bell 2004; Eertmans et al. 2005).

Furst 등(1996)에 따르면 심리적 속성과 같은 개인 속성들은 가치 조절을 통하여 음식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여기서 가치는 감각 지각도, 금전적 고려, 몸무게 관리와 관련된 건강 신념과 관심, 또는 영양 신념과 관심, 그리고 편의성으로 구성된다. Bell & Marshall(2003)과 Marshall & Bell(2004)의 연구들에서는 높은 수준의 음식 몰

입을 가지고 있는 개인의 음식 선택에는 특정 동기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나타내 보여 주었다. Eertmans 등(2005)은 건강 관심과 같은 음식 선택 동기와 식행동의 관계가 개인의 음식 몰입의 수준과 음식 신공포증의 수준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분석해 냈다.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는 건강 관심이 채소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음식 몰입과 음식 신공포증이 조절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자들이 전남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성인 남녀에게 접근하여 설문조사 목적을 설명하고, 설문지를 배포하여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2007년 6월 2일부터 6월 15일까지 설문을 조사하였다. 설문지는 총 300부가 배부되었으나, 부정확하게 응답을 한 10부의 설문지를 제외한 290(96.7%)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2. 조사내용과 측정방법

본 연구의 설문지는 성별, 연령, 키, 몸무게와 건강 관심, 음식 몰입, 음식 신공포증과 채소 소비에 관한 질문들로 구성되었다. 건강 관심, 음식 몰입과 음식 신공포증의 문항들은 각각의 문항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면 1점을 선택하고, 아주 동의한다면 5점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측정되었다.

건강 관심은 채소 섭취가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정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도움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설문문항은 선행연구(Steptoe et al. 1995; Bell & Marshall 2003; Eertmans et al. 2005; Chen MF 2007; Kang & Jeong 2007)에서 사용했던 6문항에 의해 측정되었다. 음식 몰입은 음식에 대해 이야기를 하거나 음식을 직접 구매하여 요리하는 활동을 즐겁게 행하는 정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몰입이 높은 것

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몰입(involvement)은 직무 관여(job involvement)와 같이 관여라는 개념으로 사용되기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설문 문항은 선행연구(Bell & Marshall 2003; Eertmans et al. 2005; Chen MF 2007; Kang & Jeong 2007)에서 사용했던 6문항에 의해 측정되었다. 음식 신공포증은 새로운 음식을 기피하는 정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많이 기피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설문문항은 선행연구(Pliner & Hobden 1992; Marshall & Bell 2004; Eertmans et al. 2005)에서 사용했던 5문항에 의해 측정되었다. 채소 소비는 채소를 소비하는 빈도이다. 설문문항은 Eertmans 등(2005)의 연구에서 사용했던 문항에 의해 측정되었다.

3. 연구모형 및 가설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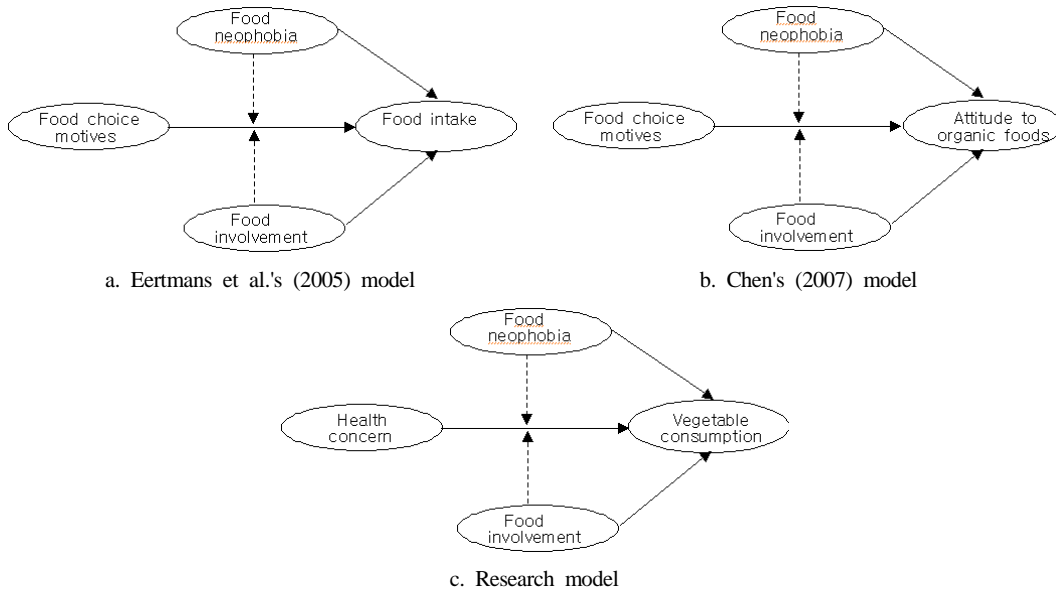
본 연구는 음식 섭취에 미치는 영향(Eertmans 등 2005)과 유기농 음식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Chen MF 2007)을 조절하는 음식 몰입과 음식 신공포증의 조절 효과를 분석했던 연구를 참고하여 (Fig. 1)과 같이 건강 관심과 채소 소비의 관계에 미치는 음식 몰입과 음식 신공포증의 조절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조절회귀모형을 개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3개의 상호작용 항들을 제한한 모형과 제한하지 않은 제안 모형을 비교하고, 채소 소비에 미치는 직접 효과와 조절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들을 설정하였다.

H_1 : 건강 관심과 음식 신공포증의 상호작용 항, 건강 관심과 음식 몰입의 상호작용 항, 그리고 건강 관심, 음식 몰입과 음식 신공포증의 상호작용 항이 포함된 모형이 상호작용 항이 포함되지 않은 모형에 비해 더 우수한 적합도를 보일 것이다.

H_2 : 건강 관심, 음식 몰입과 음식 신공포증이 채소 소비에 미치는 직접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할 것이다.

H_3 : 채소 소비와 건강 관심의 관계에서 음식



<Fig. 1> Moderated regression model with food involvement and food neophobia as moderator.

몰입과 음식 신공포증의 조절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할 것이다.

H4: 음식 몰입과 음식 신공포증의 수준별 건강 관심이 채소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할 것이다.

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의 모든 분석들을 위한 통계프로그램은 SPSS win 15.0을 이용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징은 빈도분석을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측정변수들에 의해 측정된 구성개념들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주성분분석, 상관관계분석과 크론바 알파값을 이용하였다. 조절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조절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IV. 분석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Table 1>에 의하면 성별에서 남성이 146명(50.3%), 여성이 144명(49.7%)이었다. 남성 응답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Characteristic		n(%) or M(SD)
Gender	Male	146 (50.3)
	Female	144 (49.7)
Age	Male	36.343(11.756)
	Female	34.583(11.986)
Height	Male	172.240(5.325)
	Female	161.108(7.583)
Weight	Male	70.452(9.438)
	Female	54.514(6.851)

자의 평균 연령은 36.343세, 여성의 평균 연령은 34.583세였다. 남성 응답자의 평균 신장은 약 172 cm, 여성 응답자의 평균 신장은 약 161 cm이었다. 남성 응답자의 평균 몸무게는 약 70 kg, 여성 응답자의 평균 몸무게는 약 55 kg이었다.

2. 구성개념들의 타당성과 신뢰성

먼저 자료들이 요인분석에 적합한 자료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17문항의 상관행렬에 대해 바틀렛의 구형성 검정과 KMO의 표본적합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형성과 표본적합도에 대한 결

〈Table 2〉 Factor loadings and Cronbach's α of health concern, food involvement and food neophobia

Variables	Component		
	Health concern	Food involvement	Food neophobia
Vegetable is nutritious.	0.868	6.499E-02	-4.064E-02
Vegetable is high in protein.	0.859	9.409E-02	-8.639E-03
Vegetable keeps me healthy.	0.846	5.941E-02	-8.044E-02
Vegetable contains a lot of vitamins and minerals.	0.825	0.127	-2.090E-02
Vegetable is high in fibre and roughage.	0.769	0.155	-0.120
Vegetable is good for my skin/teeth/hair/nails etc.	0.730	9.646E-02	-5.373E-02
I do not clean the table.	-5.734E-02	0.747	-7.673E-02
I do not wash dishes.	-5.116E-02	0.735	-7.324E-02
I do most or all of the clean up after eating.	9.700E-02	0.728	-4.090E-02
I do the cooking most of the time.	0.241	0.693	-6.324E-02
I do most or all of my own food shopping.	0.271	0.604	-0.153
I enjoy cooking for others and myself.	0.135	0.583	-0.140
I like to try new ethnic restaurants.	-6.155E-02	-0.126	0.668
I am constantly sampling new and different foods.	-0.234	-0.173	0.651
I will eat almost anything.	-8.112E-03	-3.515E-02	0.610
I do not trust new foods.	0.128	-9.057E-02	0.601
At dinner parties, I will try a new food.	-0.109	-3.185E-02	0.584
Eigen value	4.943	2.634	1.662
% of variance (54.289)	29.077	15.432	9.779
Cronbach's α	0.908	0.789	0.627
MSA	0.835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chi^2(df)$	1942.897(136)***		

*** $p < 0.001$.

과는 〈Table 2〉에서 제시되었다. 구형성 검정 결과에 의하면, 카이 제곱값은 1942.897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 0.001$). 또한, 표본적합도도 0.835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설문문항들이 주성분분석에 적합한 자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직교회전 이후에 3개 구성개념들이 설명할 수 있는 변수들의 분산 크기는 1 이상으로 나타났다. 설명력에서 3개 구성개념들은 전체분산의 54.289%로 나타났다. 그리고 측정변수들과 3개 구성개념들 간의 요인적재량은 0.583 이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3개 구성개념들은 충분한 집중타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뢰도 검정 결과에 의하면, 크론바의 알파값은 건강 관심이 0.908, 음식 몰입이 0.789, 그리고 음식 신공포증이 0.627로 일반적으로 추천되는 기준인 0.6 이상이었다. 따라서 3개 구성개념들의 설문문항들은 충분한 신뢰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Table 3〉에 의하면, 건강 관심은 음식 몰입과 0.272($p < 0.001$), 그리고 음식 신공포증과 -0.174($p < 0.01$)의 상관관계들을 보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음식 몰입은 음식 신공포증과 -0.282의 상관관계들을 보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 < 0.001$). 모든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계수들은 개별 변수의 신뢰도보다 높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3개 구성개

〈Table 3〉 Correlation coefficients of health concern, food involvement and food neophobia

Factors	Mean±SD ¹⁾	Health concern	Food involvement	Food neophobia
Health concern	3.318±0.919	1		
Food involvement	3.090±0.907	0.272***	1	
Food neophobia	2.789±0.659	-0.174**	-0.282***	1

** $p < 0.01$, *** $p < 0.001$.

¹⁾ Likert 5 point scale: 1=strongly disagree, 3=neither agree nor disagree, 5=strongly agree.

념들은 충분한 판별타당성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Andaleeb & Conway 2006).

3. 채소 소비와 건강 관심의 관계에서 음식 몰입과 음식 신공포증의 조절 효과 분석

1) 채소 소비에 미치는 직접 효과와 조절 효과 분석 결과

채소 소비에 미치는 건강 관심, 음식 몰입과 음식 신공포증의 직접 효과와 조절 효과를 분석한 〈Table 4〉에 의하면, 4개 모형들의 F 값은 각각 9.874, 9.371, 12.756, 8.542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모형 적합도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4개 모형들의 R square 값들이 각각 0.094, 0.142, 0.152, 0.153으로, 건강 관심, 음식 몰입과 음식 신공포증 이외에 음식 신공포증의 상호작용 항과 건강 관심과 음식 몰입의 상호작용 항, 건강 관심, 음식 몰입과 음식 신공포증의 상호작용 항이 포함된 모형 4의 R square 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H_1 은 채택되었다.

음식 몰입이 채소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모형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모형 2, 3, 4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건강 관심과 음식 신공포증이 채소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모형 1, 2, 3, 4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상호작용 항들 중 건강 관심과 음식 신공포증의 상호작용 항과 건강 관심과 음식 몰입의 상호작용 항은 모형 2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지만, 모형 4에선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나타지 않았다. 건강 관심, 음식 몰입과 음식 신공포증의 상호작용 항은 모형 3, 4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모형 4에 의하면 가설 H_2 는 채택되었으나, 가설 H_3 은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2) 음식 몰입과 음식 신공포증의 수준별 채소 소비에 미치는 건강 관심의 영향 분석 결과

음식 몰입과 음식 신공포증의 수준별 건강 관심이 채소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Table 5〉에 의하면, 음식 몰입과 음식 신공포증의 수준들이 모두 낮을 때, 음식 몰입 수준이 낮으나 음식 신공포증 수준이 높을 때, 그리고 음식 몰입 수준이 높으나 음식 신공포증 수준이 낮을 때 건강 관심은 채소 소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음식 몰입과 음식 신공포증의 수준들이 모두 높을 때 건강 관심은 채소 소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H_4 는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음식 몰입이 낮을 때 단순 기울기를 보여주는 〈Fig. 2〉에서 보면, 음식 신공포증 수준이 낮은 응답자들에게 있어서 건강 관심이 낮을 때의 채소 소비와 건강 관심이 높을 때의 채소 소비 간 차이가 있다. 또한 음식 신공포증 수준이 높은 응답자들에게 있어서 건강 관심이 낮을 때의 채소 소비와 건강 관심이 높을 때의 채소 소비 간 차이가 있다.

음식 몰입이 높을 때 단순 기울기를 보여주는 〈Fig. 3〉에서 보면, 음식 신공포증 수준이 낮은

<Table 4> Direct and moderating effects of health concern, food involvement and food neophobia on vegetable consumption

Model		B	SE	Beta	t	Sig.
Model 1 F=9.874*** R square=0.094	Constant	5.011	0.458		10.939	0.000***
	Health concern	0.314	0.071	0.259	4.397	0.000***
	Food neophobia	-0.227	0.100	-0.134	-2.272	0.024*
	Food involvement	0.143	0.074	0.116	1.924	0.055
Model 2 F=9.371*** R square=0.142	Constant	10.558	1.475		7.159	0.000***
	Health concern	1.966	0.423	1.620	4.644	0.000***
	Food neophobia	-1.387	0.335	-0.820	-4.137	0.000***
	Food involvement	0.889	0.272	0.724	3.269	0.001**
	Health concern ×Food neophobia	0.352	0.098	0.993	3.602	0.000***
	Health concern ×Food involvement	0.216	0.075	0.940	2.881	0.004**
Model 3 F=12.756*** R square=0.152	Constant	9.724	1.156		8.410	0.000***
	Health concern	0.966	0.163	0.796	5.922	0.000***
	Food neophobia	-1.090	0.218	-0.644	-4.996	0.000***
	Food involvement	0.902	0.186	0.734	4.839	0.000***
	Health concern ×Food involvement ×Food neophobia	0.008	0.018	0.947	4.415	0.000***
Model 4 F=8.542*** R square=0.153	Constant	10.292	1.473		6.985	0.000***
	Health concern	1.296	0.540	1.068	2.398	0.017*
	Food neophobia	-1.268	0.339	-0.749	-3.742	0.000***
	Food involvement	0.920	0.271	0.749	3.394	0.001**
	Health concern ×Food neophobia	0.110	0.156	0.309	0.701	0.484
	Health concern ×Food involvement	0.005	0.111	0.226	0.465	0.642
	Health concern ×Food involvement ×Food neophobia	0.006	0.031	0.747	1.980	0.049*

*p<0.05, **p<0.01, ***p<0.001.

Model 1 without interaction effect, Model 2 with two-way interaction effects, Model 3 with three-way interaction effects, Model 4 with two and three-way interaction effects.

응답자들에게 있어서 건강 관심이 낮을 때의 채소 소비와 건강 관심이 높을 때의 채소 소비 간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음식 신공포증 수준이 높은 응답자들에게 있어서 건강 관심이 낮을 때의 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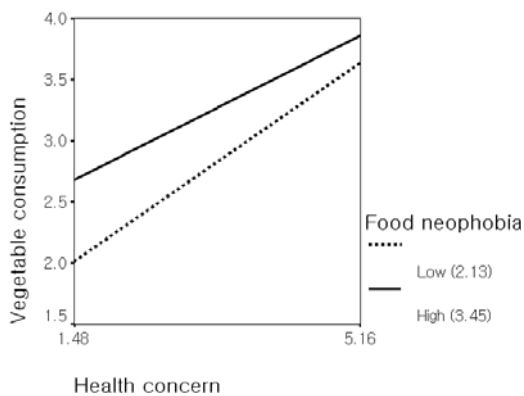
소 소비와 건강 관심이 높을 때의 채소 소비 간 차이는 없었다.

V. 요약 및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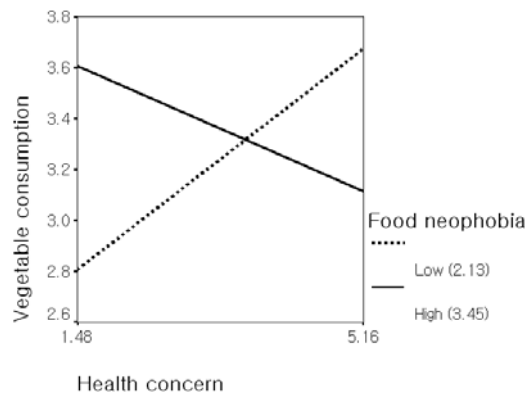
〈Table 5〉 The effect of health concern on vegetable consumption by levels of food neophobia when food involvement was high or low

Moderator		Constant	B	SE	Beta	t	Sig.
Food involvement	Food neophobia						
Low	Low	5.717	0.703	0.135	0.579	4.293	0.000***
Low	High	3.865	0.329	0.090	0.271	3.016	0.003**
High	Low	3.870	0.323	0.089	0.266	2.986	0.003**
High	High	2.341	-0.107	0.118	-0.089	-0.750	0.454

** $p < 0.01$, *** $p < 0.001$.



〈Fig. 2〉 Simple slope plots when food involvement was low.



〈Fig. 3〉 Simple slope plots when food involvement was high.

본 연구의 결과들은 음식 몰입의 수준이 높을 지라도 음식 신공포증의 수준이 높을 때에는 건

강 관심이 높고 낮음에 따라 채소 소비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따라서 채소 생산자 또는 판매자들은 채소 소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음식 신공포증의 수준을 낮출 수 있는 채소 상품 개발 또는 마케팅 노력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음식 몰입의 수준이 낮은 소비자들은 음식 신공포증의 수준이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 채소 소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음식 몰입의 수준이 낮은 소비자들의 음식 선택 동기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건강식 개발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건강에 대한 관심의 증진이 채소 소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건강 증진에 미치는 채소 섭취의 효과를 홍보하고 음식 신공포증을 해소하여 채소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론적인 측면에서 본 연구는 채소 소비에 미치는 직접 효과와 조절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의 틀을 제공함으로써 건강 관심과 채소 소비의 관계를 조절하는 음식 신공포증과 음식 몰입의 조절 효과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조절회귀모형을 구성하고 있는 음식 신공포증과 음식 몰입의 조절 효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선 다른 표본과 다른 지역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분석해 보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채소 대신에 과일 소비에 미치는 직접 효과와 조절 효과를 분석할 필

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1. Andaleeb SS · Conway C (2006) : Customer satisfaction in the restaurant industry. *Journal of Services Marketing* 20(1):3-11.
2. Baum A · Posluszny DM (1999) : Health psychology: Mapping biobehavioral contributions to health and illnes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0:137-163.
3. Bell R · Marshall DW (2003) : The construct of food involvement in behavioral research: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Appetite* 40:235-244.
4. Chen MF (2007) : Consumer attitudes and purchase intentions in relation to organic foods in Taiwan: Moderating effects of food related personality traits. *Food Quality and Preference* 18:1008-1021.
5. Cooke LJ · Wardle J · Gibson EL · Sapochnik M · Sheiham A · Lawson M (2004) : Demographic, familial and trait predictors of fruit and vegetable consumption by pre-school children. *Public Health Nutrition* 7(2):295-302.
6. Eertmans A · Baeyens F · Van den Bergh O (2001) : Food likes and their relative importance in human eating behavior: Review and preliminary suggestions for health promotion. *Health Education Research* 16(4):443-456.
7. Eertmans A · Victoir A · Vansant G · Van den Bergh O (2005) : Food related personality traits, food choice motives and food intake: Mediator and moderator relationships. *Food Quality and Preference* 16:714-726.
8. Furst T · Connors M · Bisogni CA · Sobal J · Falk LW (1996) : Food choice: A conceptual model of the process. *Appetite* 26(3):247-265.
9. Galloway AT · Lee Y · Birch LL (2003) : Predictors and consequences of food neophobia and pickiness in young girls. *Journal of the American Dietetic Association* 103(6):692-698.
10. Greeno CG · Wing RR (1994) : Stress-induced eating. *Psychological Bulletin* 115:444-464.
11. Kang JH · Jeong HJ (2007) : Analyzing the indirect effect of food involvement on vegetable consumption among adults in Jeonnam Area. *Korean J. Food Culture* 23(1):97-104.
12. Koivisto-Hursti UK · Sjoden PO (1997) : Food and general neophobia and their relationship with self-reported food choice: Familial resemblance in Swedish families with children of ages 7~17 years. *Appetite* 29(1):89-103.
13. Marshall DW · Bell R (2004) : Relating the food involvement scale to demographic variables, food choice and other constructs. *Food Quality and Preference* 15:971-979.
14. Montonen J · Jarvinen R · Heliovaara M · Reunanen A · Aromaa A · Knekt P (2005) : Food consumption and the incidence of type II diabetes mellitus. *European Journal of Clinical Nutrition* 59:441-448.
15. Pliner P · Hobden K (1992) : Development of a scale to measure the trait of food neophobia in humans. *Appetite* 19(2):105-120.
16. Pliner P · Lahteenmaki L · Tuorila H (1998) : Correlates of human food neophobia. *Appetite* 30:93.
17. Steptoe A (1991) : The links between stress and illness.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35:633-644.
18. Steptoe A · Pollard TM · Wardle J (1995) : Development of a measure of the motives underlying the selection of food: The food choice questionnaire. *Appetite* 25(3):267-284.
19. Uglem S · Frolich W · Stea TH · Wandel M (2007) : Correlates of vegetable consumption

among young men in the Norwegian National
Guard. *Appetite* 48:46-53.

tite 49:696-699.

20. Zeller DA · Saito S · Gonzalez J (2007) : The
effect of stress on men's food selection. *Appe-*

2008년 1월 8일 접수
2008년 2월 29일 게재확정